

제 9회 『애덤 스미스 입문』_에이먼 버틀러

자유인문학회 손경모 외 4명

2019년 2월 2일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 자유인문학회 사무실

• 기초로서의 정의

사회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그것의 개개 구성원들이 서로 해를 끼치는 것을 막는 규칙들이 존재해야 한다. 스미스가 논평하듯이, 강도들과 살인자들의 사회가 존재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오직 그들이 서로 약탈하고 살해하는 것을 삼가는 한 그렇다. 이것은 우리가 정의(justice)라고 부르는 규칙들이다.

만약 사람들이 자기들이 할 수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을 돕지 않거나, 선행에 보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몰인정하다거나 은혜를 모른다고 비난할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에게 선행을 하도록 강제하기 위해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실제적이거나 의도된 해(harm)의 행위들에 대해서만 처벌한다. -중략-

정의는 해를 막는 것에 관한 것이지, 선을 극대화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다.

법은 우리를 죄의 결과로만 판단하지 않는다.

선을 극대화하려고 하면 셀 수 없이 많은 규칙들이 만들어지고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사회가 만들어진다.

• 자기비판과 양심

사실상, 자연은 우리에게 처벌보다 더욱더 즉각적인 어떤 것, 즉 우리 자신의 자기비판을 부었다고 스미스는 말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도 불편부당한 구경꾼이어서, 우리 자신을 행위자와 판사로 나눈다. 그리고 이 내부 판사는 단지 다른 사람들의 칭찬만이 아닌 그 이상을 요구한다. 우리는 또한 칭찬을 받을 가치가 있기를 원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관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정말로 당연하다고 우리가 느낄 때에만 만족한다.

이러한 양심의 불꽃은 강력한 사회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그는 주장한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운명에 너무 몰두하고 다른 사람들의 운명에서 너무 멀게 되는 것을 막는다.

우리는 양심을 세심하게 유지해야 한다. 양심과 관련된 옛말로는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은 쉽다.' 등이 있는데, 양심에 걸리는 일도 자꾸 반복하다보면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진다. 이는 양심이 자기 자신에게 작동해 경고를 해주는 것인데, 그 신호를 무시해서 무뎠지면 위험한 일인지 아닌지 위험에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된다.

교재 외

• 카프카의 [소송]

#한 시골남자가 '법'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문 앞을 지키던 문지기가 그를 저지한다. 시골남자가 나중에는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묻자 문지기는 가능하지만 지금은 안된다고 대답한다. 문지기는 자신이 금지한 것을 어기고 문 안으로 들어가볼 것을 권장하면서도 문을 통과할 수록 더욱 강한 문지기들이 있다고 위협한다. 결국 시골남자는 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포기하고 허가를 얻기 위해 노력한다. 뇌물을 써 문지기를 매수하려고 시도하지만 문지기는 시골남자가 아무 노력도 안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 받아준다고 말한다. 끊임없이 이야기를 늘어놓으며 귀찮게 하는가 하면 심지어는 문지기의 옷깃에 붙어 있는 벼룩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한다. 시골남자는 문 앞에서 긴 세월을 보낸 뒤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임종 직전 문 안에서 흘러나오는 강한 빛을 보게 된다. 시골남자는 마지막 순간에 문지기에게 왜 자신 외에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지 물었고 문지기는 시골남자만을 위한 문이기 때문이라고 대답한다. 문지기는 시골남자의 죽음과 함께 문을 닫는다.

법의 문은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당당히 문 안으로 들어가 자신을 법에 놓아볼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일반 소시민으로 비유되는 시골남자, 그리고 문지기는 한 번도 문 뒤를 가본 적이 없으면서도 문 뒤가 위협적이라 막연히 생각을 하고 그 결과 시골남자는 정공법을 포기하게 된다. 그렇게 해서 시골남자의 선택은 정공법이 아닌, 법적인 것이 아닌 방법이고 당연히 효력을 보지 못한다.

법은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들어가 볼 수 있다. 문은 사실 공무원으로 비유되는 문지기가 아니라 시골남자가 막았다. 사람들은 시골남자가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보고 그의 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감히 시도해보지 못하고 문은 닫히게 된다. 다른 사람도 시골 남자와 자신을 동일시 하기 때문이다. 그가 포기하고 죽으니 문이 닫혔다. 이제 사람들은 이 사례에 대해서는 문 뒤로 갈 시도를 할 수 없게 되었다.(시골남자의 법적인 관련 사례에 관해서 사람들은 전부 포기하고 그저 법에 복종하게 되었다.) 이렇게 모든 문이 닫히고 모든 사람들이 법에 대해 포기하고 복종만 하는 사회는 전체주의가 된다.

법의 문은 공무원이 아니라 국민들이 닫는다.
그래서 악이 승리하는데 유일하게 필요한 것은 선한 자들의 침묵이라는 것.